



한국 파머스다이얼로그: 2018년 10월 21~28일

변화의 첫걸음과 한국 농부들이 함께 주최한 파머스다이얼로그에 총 10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20명이 참가했습니다. 처음에는 4일간의 컨퍼런스와 3일간의 농장 방문으로 계획되었지만 극심한 가뭄과 태풍 및 호우로 인해 수확 시기가 늦춰지고 한국 농부들의 참여가 어려워 7일간의 농장 방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즉 참가자들과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한국의 고대 및 근대 역사를 배우고 (북한과의 접경 지역 방문), 밭에서 직접 농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농부들과 한 데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파머스다이얼로그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생명공동체를 위한 가족농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파머스다이얼로그는 2016년 11월 캄보디아 파머스다이얼로그에 참가한 2명의 한국 농부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와 한국 농부들 간 논의가 오갔고, 파머스다이얼로그 국제위원회와 (작년 1월 인도에서 열린 회의를 포함하여) 합의한 결과 한국의 파머스다이얼로그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 파머스다이얼로그는 “소통하는 생명의 연대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전쟁의 잣대 위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의 모델을 만들어낸 한국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다시 그 길을 찾으려 하는 우리의 경험을 함께 나누길 희망 합니다”라고 행사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농장의 성공 사례를 알고 싶어했습니다.



협동조합운동 —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부의 노력과 다양한 시민운동의 역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욕구를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농업부문의 경우, 농부들 간의 협력을 통해 보존, 가공, 교통 및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협동조합은 매우 중요해졌으며 대도시에서 여러 매장들이 관계망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협동조합이 거대해질수록 지역 농부들의 참여가 줄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농업의 성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별도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농부들의 협동조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농부들의 협동조합에서는 소비자에게 왜 더 못생기고 비싼 유기농 농산물을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특유의 문화를 통해 탄생한 이러한 관계는 농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분야의 개척자이자 한국의 주요 협동조합의 창시자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국가 발전에 대한 헌신을 담고 있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해야만 한다.”

농부들의 목소리 — 정부에 농부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요청하기 위해서는 농부들의 헌신 및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시위를 통해 이뤄졌지만 농부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농부들의 존중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아닌, 공통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장 박스 안의 글을 읽어주세요).

행복하고 성공한 농부들 — 참가자들이 만난 한국의 농부들은 농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행복하고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이었고, 일부 농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농부들이 한국 농부들을 부러워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기농업 — 대회 주최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유기농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유기농업은 협동조합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함께 발전해온 사업입니다. 하지만 유기농업이 기술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유기농업은 좋은 식재료를 생산하고, 땅과 토양을 사랑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한 농부는 유기농업을 시작하는 것은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체생활, 사회적 책임, 젊음이, 도시 또는 시골생활 —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참가자들은 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농민단체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귀농을 원하는 청년들이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차원의 협동조합을 통해 의료, 보육, 건축자재와 퇴비 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의료 협동조합과도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삶을 뿌리에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농부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자신들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문화와 믿음, 인류는 자연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농촌에서 농업과 사회적 활동이 한 데 어우러져 있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파머스다이얼로그를 통해 참가자들이 얻은 결론은?

- 농장 간 팀워크의 필요성
-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 - 생산량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
 - 좋은 품질의 상품 생산 (품질관리 포함)
 - 농산물 가공 활성화
 - 수익성 있는 수입 상품 및 농업부문에 대한 정치적(선거) 이용 방지에 대한 당국과의 논의
 - 브랜드 이름 개발
- 물류시설 설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 소비자와의 긍정적 관계 구축 (방문일 지정, 농장투어, 농산물소개 등)
- 유기농업의 중요성
- 도시 출신 청년 대상의 농업 교육 및 참여 독려
- 공동체생활의 중요성 및 농부들의 역할(교육, 소통)과 공동체의 장기적 목표 설정
- 식품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자급자족 이상의 농업 활동에 대한 신념. 한국 농부들은 이러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
- 농부 간 소통을 통해 성공 사례 공유 및 발전 도모
- “농부는 오로지 돈을 얻기 위해 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위한 사랑과 정성으로 씨를 뿌린다.”



한국 파머스다이얼로그 이후 개개인의 구체적 결정:

-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10명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고 싶습니다. 타밀어로 먼저 출판한 이후 영어로 번역될 예정입니다.” (조슈아, 스리랑카)
-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케냐에 있는 저희 팀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농부들의 역량강화와 여성들이 이끄는 자립모임에 대해 알려주고 싶습니다.” (도미니카, 케냐)
- “앞으로 해야 할 일: 주변 농촌 지역을 지원하고, 팀을 꾸려 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농부는 씨앗의 소중함을 깨닫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농부는 자신의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열의와 사랑만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피에르, 콩고민주공화국)
- 지난 50년간 한국 발전의 중심에는 바로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농부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이



들이 그 동안 겪은 경험을 우리와 함께 공유했습니다. 로비를 통해 원조국들이 식량위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경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농부 간 소통을 원활히 한 경험 및 한국의 소비자운동에서 얻은 교훈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통고는 현재 2019년 11월 국제파머스다이얼로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행사 이전에 한국 농부들이 남수단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 개발 및 농부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농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고, 남수단).

● **넌 & 보리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장 방문을 통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105 세대의 농촌 가족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더 발전시킬 영감을 받았습니다. **비락 & 사뭇 (캄보디아)**은 농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유기농업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동열(일마토) 농부의 영적 성찰, 농부 & 대회준비위원

농부에 대한 존중은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헌신입니다! 농부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믿음은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이 헌신은 타인 또는 타인의 의견에 맞서거나, 개인의 이기심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입장에 서있는 자를 극복하여 공통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존중을 통해 다시 한 번 힘을 얻게 됩니다.

한 농부의 가르침, 유기농업의 개척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자 (중간에 포기하지 말자!)

가톨릭농민회장의 말씀

씨앗은 가능성이자 생명력을 지닌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바로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과 같은 자연의 일부이자 지구에서의 보다 큰 삶의 목적의 일부입니다.

“파머스다이얼로그 인터내셔널”은 스위스 제네바에 등록된 단체이며, <변화의첫걸음>국제협회의 회원단체입니다. <변화의첫걸음> 국제협회는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지위와 “유럽회의”로부터 참가지위를 부여 받은 국제 NGO입니다.

Contact : internationalfd@iofc.org Website : www.farmersdialogue.org